

가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이 나고, 자영업자들은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미네르바'로 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를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 정부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자, 정부는 그를 '경제괴담 유포자'로 간주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나 사회가 어지러우면 우리의 주변에 항상 이름 모를 정체불명의 존재가 등장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곧잘 맞아 들어간다. 이번에도 그 예측이 주목구석이 아닌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존재와 함께 열광을 하고 때로는 그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 미네르바와 같은 필적의 활약은 삼시간에 많은 네티즌에게 메시지가 전해지며 댓글들을 통한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건설사와 증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허탈하고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어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네르바 신드롬과 정부의 책임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소 여론과는 달리 고집스럽게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미 금융스와프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외환 위기는 중대한 국면을 가까스로 넘겼으나 실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심이 매우 나빠져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미네르바라는 존재의 등장은 너무나도 반갑고 그의 글속에 담겨있는 정

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들어 갈수록 국민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네르바를 이 시대의 예언자이자 구원자, 아니 어쩌면 혁명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를 통해 반토막 난 주식과 펀드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부를 향해 질타하는 그의 비판적 글을 통해 통쾌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민심을 흐리는 선동자 정도로

판단하여 법정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민심의 행배를 잘못 읽고 있는 처사인 것 같다.

원래 경제가 탐이 나면 그 잘못을 지적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많다. 단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정책에 대한 약효가 언제 나타날지 또는 얼마나 같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쉽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제적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위기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 소식이 전해지면 하루 아침에 한국 경제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이 미네르바의 예측은 맞으면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도 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의 예측이 틀려도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방통행식 주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네르바의 입을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 대신 그의 지적과 경고를 경계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미네르바의 예측이 하나씩 틀러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이웃이 추우면 나도 춥다

어느 해 보다 겨울이 오는 속도가 빠르다. 미국에서 신호탄이 오른 경제 위기는 그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제파동도 만만치 않고 중동지역의 긴장 구도 역시 좋은 소식은 없다. 거기에 인도의 뭍바이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테러가 발생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난과 긴장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 연일 대한민국의 국제신용도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기에 바쁘다. 건설사들의 부도와 시장경제의 위축만으로도 살기가 벅찬데, 날마다 수위를 높여가는 前 정권 인사들의 비리 소식은 서민들에게 분노만 더해주고 있다. 이래저래 경기와 정세에 대한 체감온도는 겨울추위보다 무섭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런 시간에는 자신의 길 말고도 이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나 보다 더 추운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자비심이 없다면 자신의 삶도 고립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 겨울은 복지관이나 빈곤층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간이 될 거란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말라가는 경제지표가 이웃을 향한 자비심마저 고갈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자기의 옷깃만 여벌 수는 없다. 내가 추우면 이웃이 춥고 이웃이 추우면 내가 춥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추위도 나누면 따뜻해진다. 연말, 이웃을 위해 나의 작은 정성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에 행복이란 꽃이 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자녀에게 수행을 권하자

산사와 도심포교당이 겨울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련회와 템플스테이, 수행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겨울은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모든 생명이 움츠러들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커다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움을 준비하는 계절이 겨울이 아닌가. 그래서 겨울은 진정한 생명의 기운을 축적하는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불자임을 자인하는 어른들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수행 프로그램에 동참시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잘못된 일이다. 부모가 불자라면 자식에게도 바른 불교관을 심어주고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해 보다 올곧은 불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부모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불자라는 이름은 걸어 둔 채 비불교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포교 방침이다. 불자인 부모가 자녀를 절로 인도하지 않는데 누가 자녀를 절에 보내겠다는가? 가장 가까운 포교대상이 바로 자녀들이다. 사찰 학생회와 청년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데는 기성세대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방학을 이용한 수련회와 수행 프로그램에만 참석 시켜도 자녀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상상 외로 높아질 것이다. 스님들은 수행하는 습관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도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올 겨울 방학엔 모든 불자들이 자녀를 한 번씩 수행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길 당부한다.

공부만 잘 해라

"아무래도 아들 녀석이 삼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점수가 자기 생각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정씨는 웃고 있었다.

"지나거나 또 고생이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만 들어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정씨는 또 밝게 웃었다.

아들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정씨는 웃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성적이 중간 정도여서 도무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매일 공부하러 잔소리하고 오로지 성적에만 신경 썼다. 특히 친구들의 자녀가 공부 잘 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화가 나고 속상했다.

"너는 왜 좀 더 열심히 안 하니?" "엄마, 나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공부해서 남 주나 뭐,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정씨는 항상 공부 못 하는 아들에게 불만이었다. "아유, 제발 공부만 좀 잘해 주었으면! 저러다 대학도 못가면 어쩌려고?" 웃는 얼굴로 대하지 않았다.

도무지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중3이 되자 아들 공부 잘 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친구 따라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기도라도 하면 좀 달라질까 해서였다. 그러나 아들 성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정씨는 "이제 삼수한다는 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하며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사랑 준 엄마로 남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2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만 있어도

절에 다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정씨 아들보다 한 살 많은 고등학생이었다. 공부를 잘 해서 늘 정씨가 부러워하는 집이었다. 전해주는 다른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가 났대요." 믿어지지 않았다. 영안실에 갔다. 그 엄마는 실신해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정씨는 멍한 상태에서 영정 앞으로 가 절을 했다. 절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 '앗!' 하고 휘청하며 넘어질 뻔하였다. 영정의 사진이 순간 자기 아들 얼굴로 보였던 것이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주저 앉아버렸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며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했다. 정씨는 자기

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려버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통곡하며 울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제가 아들 때문에 울어주는 줄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씨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자기도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 애가 아니라 우리 애에게 사고가 났다면, 전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날 어떻게 집에 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자마자 아들 방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방문을 열었다. "아니, 엄마 뭐 하세요?" "응, 아니다" 하고 정씨는 가서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아들은 놀라서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네가 고마워"

서. 애야,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 때문에. 만날 공부하라는 말만 하고 미안해, 미안해." 정씨는 또 울음이 터졌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때 가슴 속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마치 열을 하듯이 그 소리가 정씨 가슴을 뭅뭅했다.

사랑을 주는 엄마

그 날 이후 정씨의 기도는 바뀌었다. 매일 남편과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는 데 대해 감사하게 됐다. 아들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수를 하게 되었지만 정씨는 불평하지 않았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꼭 도전해 보고 싶다는 것이다. "한 번 더 삼수한다고 하면, 아마 예전의 저라면 열불이 났을 거예요." 인생에 한번 뿐인 젊은 시절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뒷바라지해주고 싶다고 한다. "언제 이 애와 헤어져도 사랑해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성적이나 대학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로 그냥 받아주고 사랑을 준 엄마로요. 다부처님 덕분이죠." 그러더니 슬며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엄마는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 것 아니니까. 해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얼마나 아들 생각이 나겠어요. 그 아들영가를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빙의, 제대로 알자

빙의의 시대 2

이은이 / 일광 (總編)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관음출판사
(스캔받은 데이터로 붙여주세요-보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